



뭘 하는 거야? 켄지...



!!



꾸물거리면 안돼!  
이 공항은  
이제 곧...!



여기 오는 동안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뭘 하느냐,  
내가 할 소리야!



유키지 ...



이제 됐다고...



너부터  
침착해.

그... 그래, 됐어...  
아... 아무튼  
침착하게 들어!



무슨 일이나고?  
걱정은 있는대로  
시켜놓고...!



일 때문에 사건이 터져서  
전화 받을 경황이 없었어.  
무슨 일인데?



경악

그래도 ...!



아무튼  
기사 아저씨도  
빨리 여기서  
도망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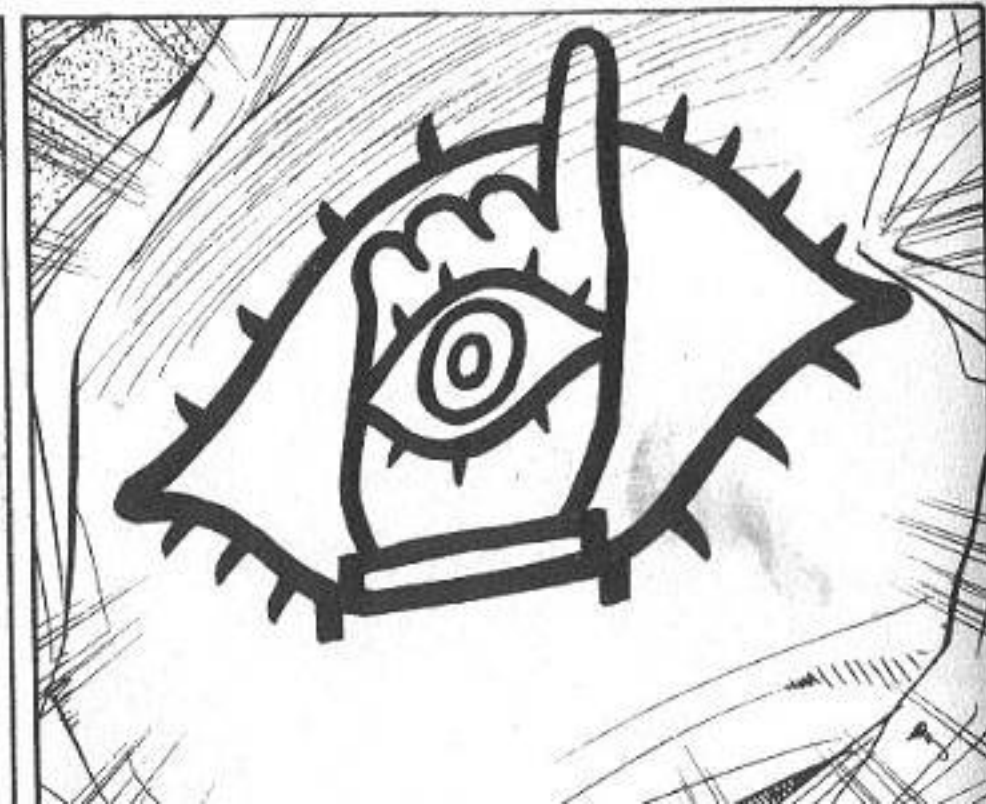
거스를  
필요 없어요!

거스름?



켄지...?









다음에  
뭘 하려는지가  
기억났어...

이놈들이...  
아니,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



이 놈은  
"친구"와  
한 패야.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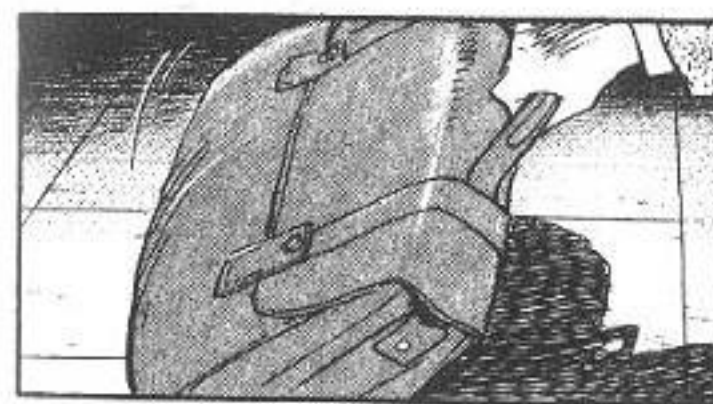
공항 폭파야!!



그...  
그럴 수가  
...



!!



보여  
주실까?

그 가방  
속을...



그놈이야!!

뭐?



켄지까지  
무슨 소리야?  
안에 든 건  
밀가루잖아!

아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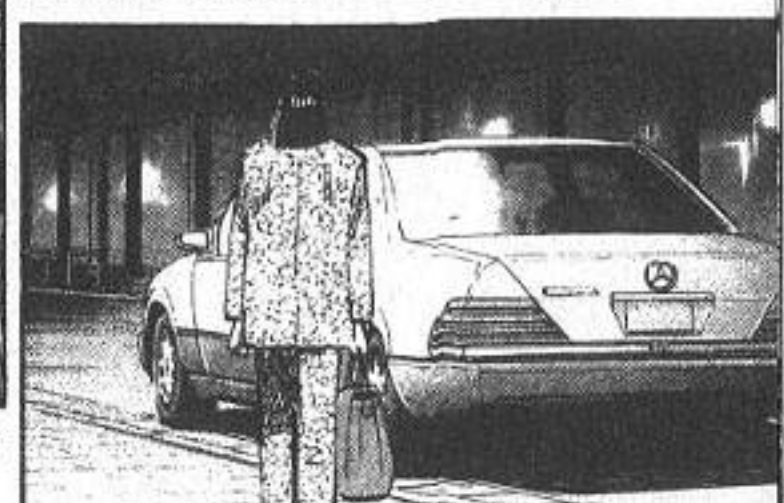


폭탄...?



폭탄이야.







# 콰앙앙



이곳  
\*나리타 공항이  
있었나?

그 시대...  
자네들이  
어렸을 때 ...

\* 나리타 공항(신도쿄 국제공항) 1978년 개항.

이런 곳에서  
노닥거려도  
되나?

그런  
것보다  
켄지 군...

하네다...!

우...  
우리 집에  
...?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  
하네다 공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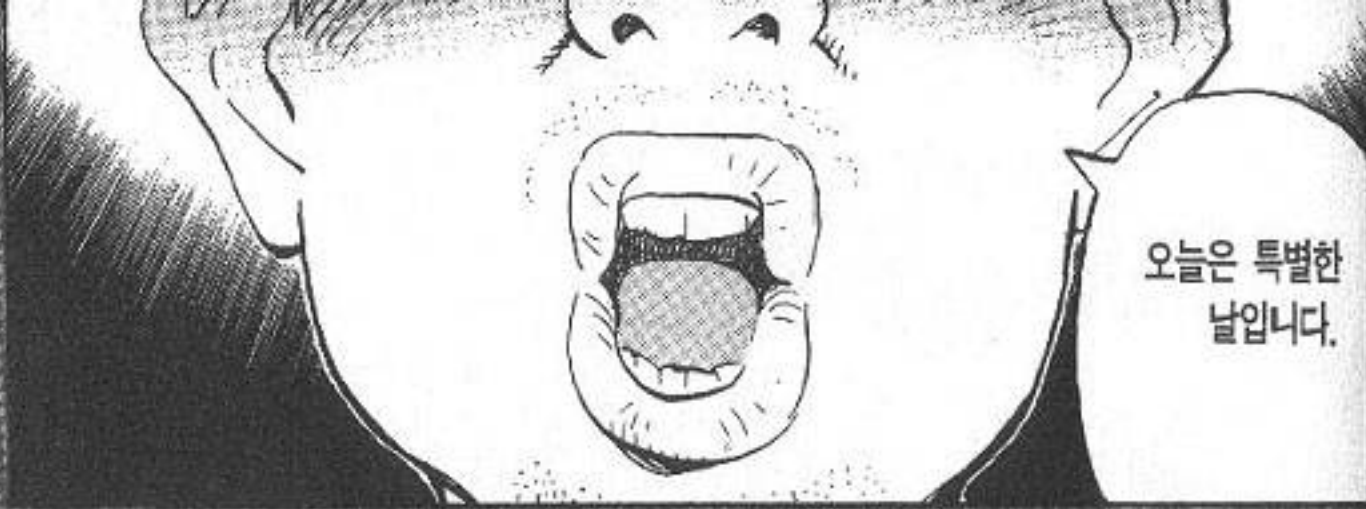
지금 TV볼 정신이  
어딴어,  
무슨 일 냐?

치요 씨,  
치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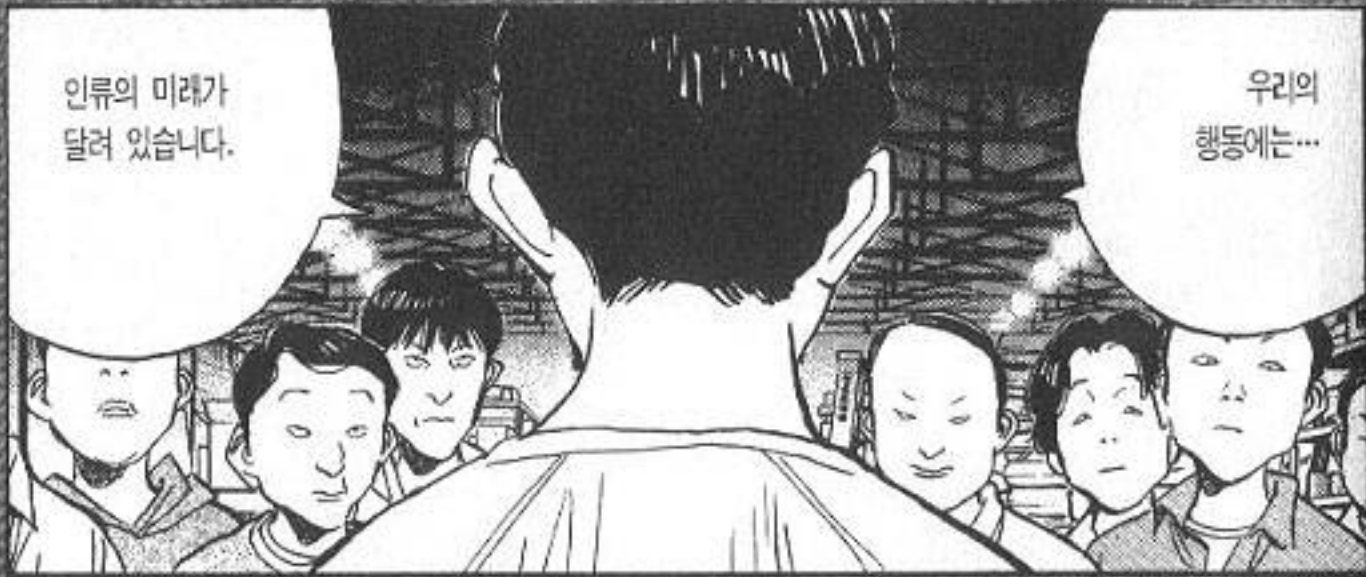
어... 어머니?  
웬 손님이  
이렇게 많아?

방금  
TV 속보에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 힘으로 되찾아 옵시다.

인류의 미래를 구할 "운명의 아이"를.



"운명의 아이"는 지금 악마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에게 돌려보내 줘서.

이대로 두면 "운명의 아이"는 "악마의 아이"가 되고 맙니다.



지금쯤 다들 모시러 갔을 거야.

"친구"의 하나뿐인 딸, 칸나를...



내가 아나. 아들이란 놈은 농땡이만 피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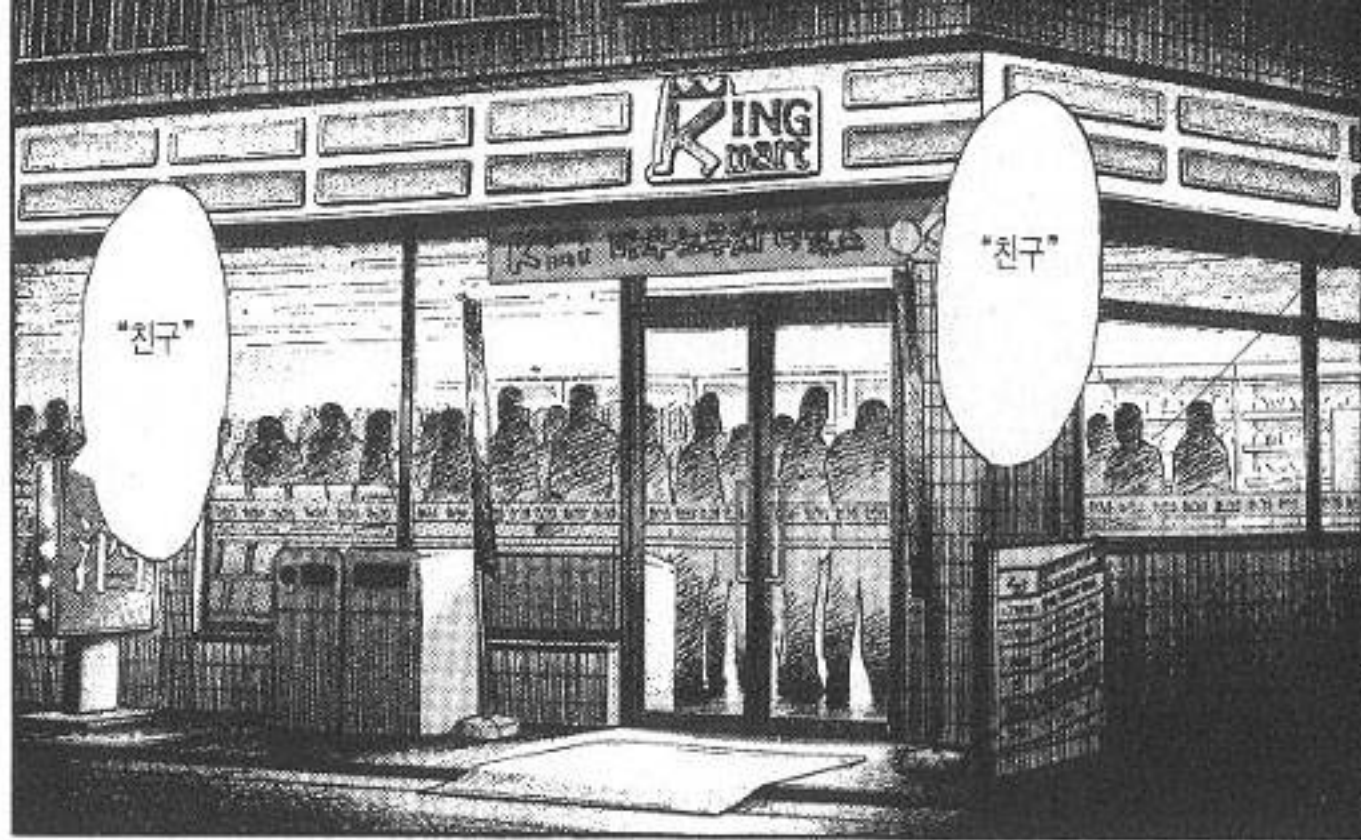
이런 시간에 왜 이리 손님들이...



우.











니에~

진열도  
하기 전에  
팔려  
버리지만요.



도시락 데워  
드릴까요?



에리카-  
도시락 진열 끝났으면  
계산대로 와라!



못된 아들놈에,  
되는 일이라곤  
없었는데...

아아...  
애들 아빠가  
죽고나니까  
키리코는 캔나를  
덜렁 맡겨 놓고  
사라지지...



잘됐네요, 치요 씨.  
그동안의 고생에  
이제 보답이  
돌아오나 봐.



저...

네,  
어서오세요!



하하하!!

시...  
싱거운 소리  
마!



그렇네요.  
재혼이라도 할지  
또 알아?

이제부터  
인생이  
꽃피려나...



드디어  
이 편의점도  
본 계도에  
오른 거야~!!

제9화  
운명의 아이





한번  
안아 봐도  
될까요?

아가  
귀엽군요.



잠깐만...

잠깐만...



계산대에서  
나가라잖아!

뭐... 뭐야,  
대체!



잠깐만...

잠깐만...

으으음!!



안된다니까  
...으음!



우음!!



아... 아니...  
손님께 아이를  
맡길 수아...

한번 안아 봐도  
될까요?



저...  
왜 그러시죠  
...?



아가  
귀엽군요.



이봐요,  
거기 들어가면  
안돼요.



아...

울기라도 하면  
폐가 되니까  
...



안된다니까,  
손님들...

뭐...  
뭐예요? 뭐?



어?

우리  
화장실은  
안 빌려  
줘요...



자... 잠깐만,  
계산대에  
들어가면  
안돼요.





이애애애!!



히이익!



이애애애애!!



히이익...



화...

이애애애!!



악-  
칸나-!!



히이익!

칸나-!



히이익!

칸나를  
내봐-!



이애애애애!!



유명의  
아이...



칸나를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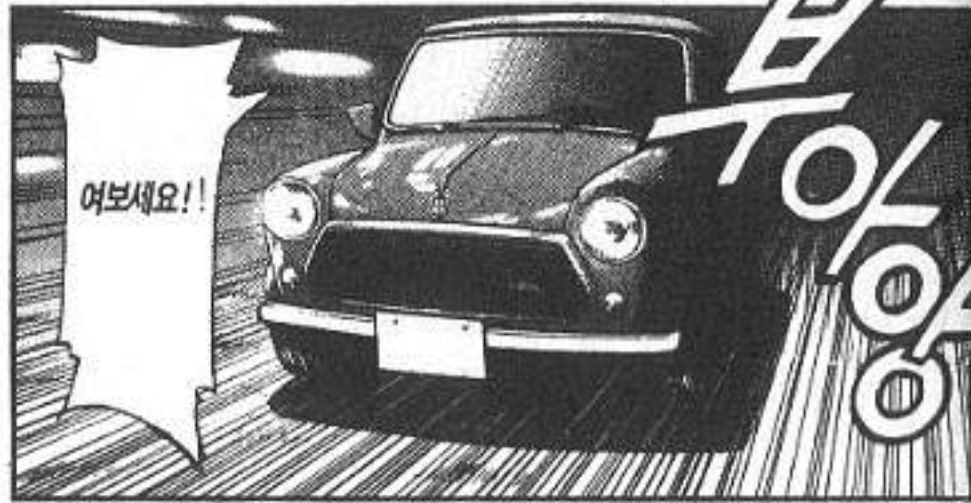
뭐...  
뭐하는 짓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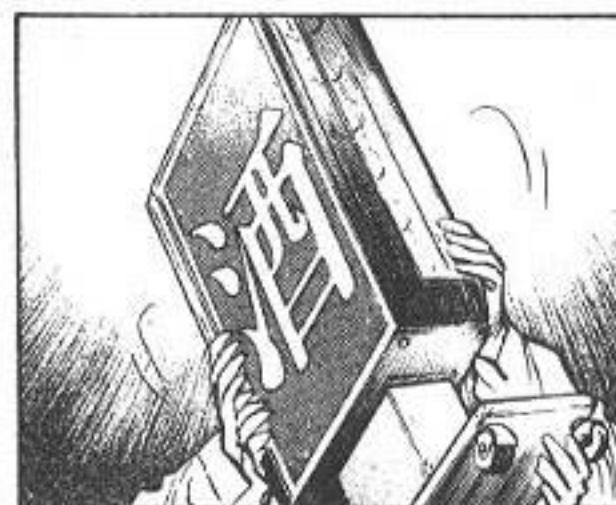
돌려 달라니까!

이애애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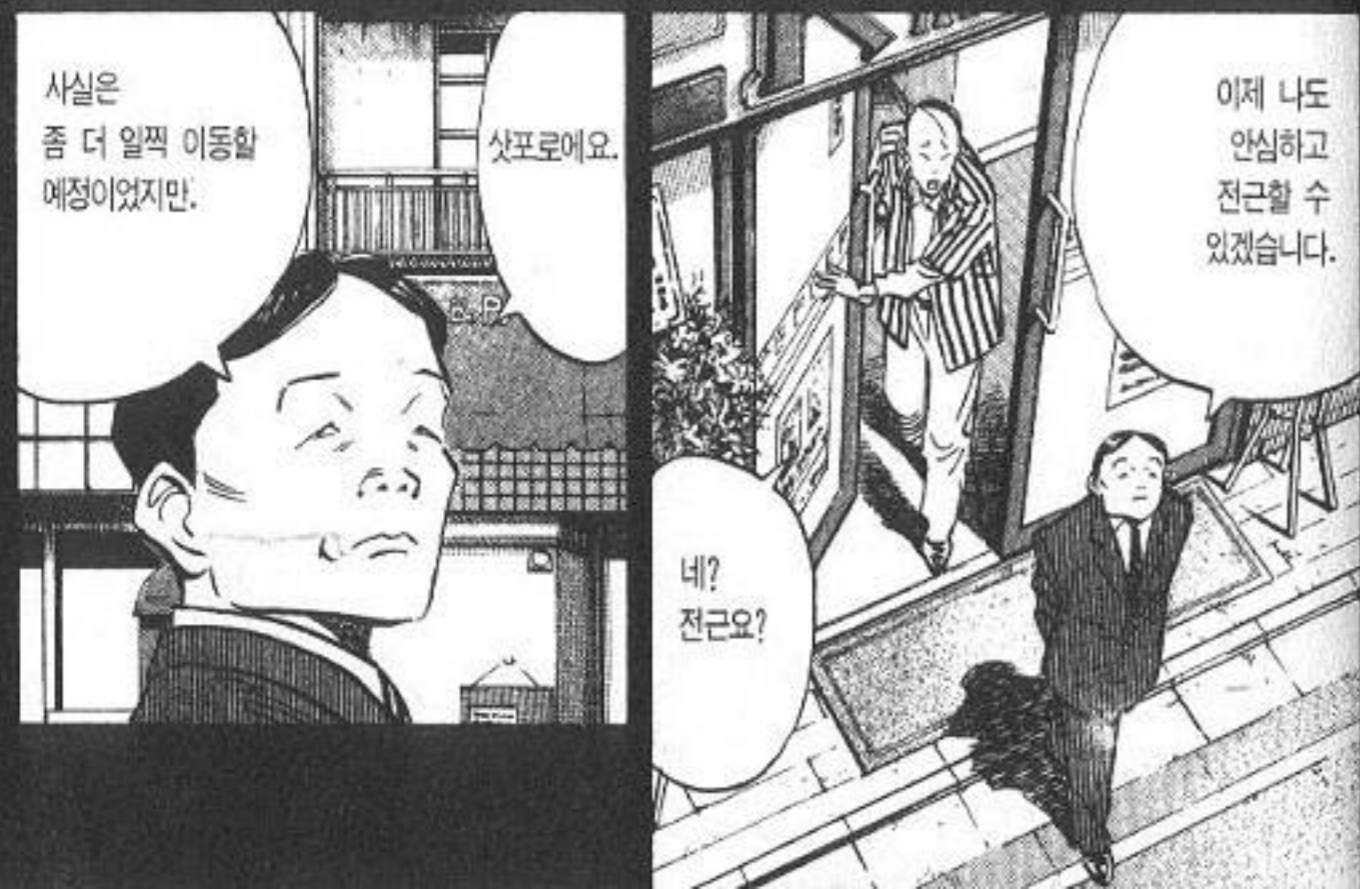
























내가 살면  
뭐하나...



엄마.



하~  
내 팔자아...



아~  
이러니  
편의점 같은 걸  
하는 게 아닌데...



좀 먹어,  
엄마.

에구~  
차라리  
죽어야지...



그 뒤는 부엌...  
아~  
그리워라...

가게에서  
들어가면  
세 평짜리  
마루...



집이야  
났지만...

옛 집이  
그립구나...



나도 내 고민만  
늘어났을  
뿐이고.



말을 꺼낼 수  
없었는지...  
우리가 사는 모양을  
보고...

와구  
와구  
와구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비밀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낼 수는  
있을지도...



그런 건  
아무 보탬도  
못 되겠지만  
...

우리는 결국  
격려 정도밖에  
못해...



와구  
와구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랬어.



아...  
아니...

뭔가  
생각나?



지금 어디  
있대?

...그래서  
켄지는...





그게 아니고,  
뭘 물었다고  
...?



뭐라고...?

뭐...



내 수국  
물어내.



뭔가를  
물었어...?



저녁...



엄마!

작지만  
정원도  
있었지...



수국을...

심었지,  
거기...



엄마,  
그만 좀 해.

위층으로 가면  
매들 방...  
빨랫줄이  
있고...



아들이란  
놈은 그걸 죄  
뽑아 버리고  
...



예쁜 꽃도  
피었는데...



내 수국  
어떻게 물어낼  
거냐?

뭘 물었는지  
몰라도  
커다란 구멍을  
파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적  
없대두!

뽑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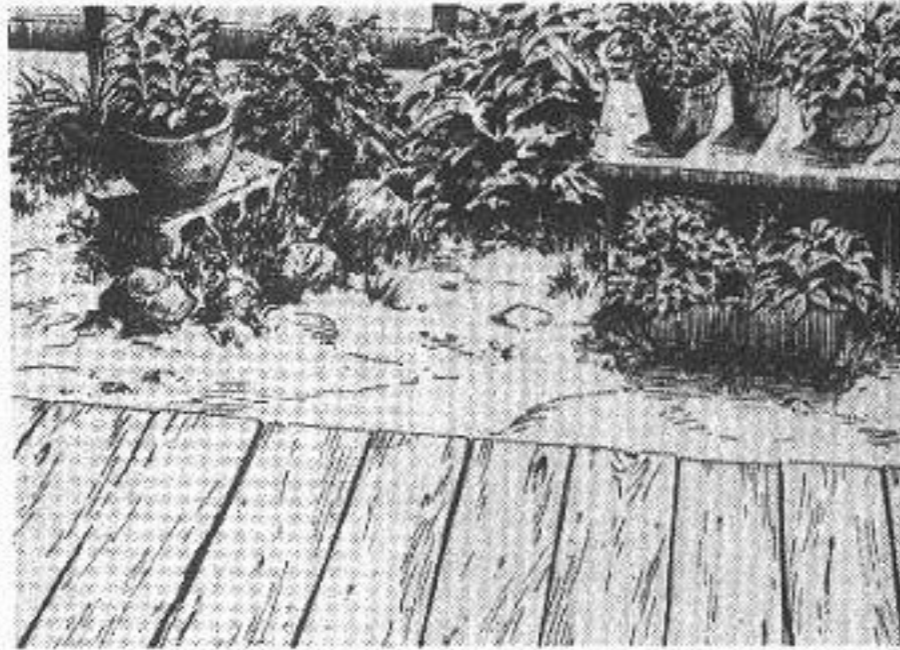




아마  
이 부근이지  
...?



정원...



11



아저 수박을  
살것 먹을 수  
있습니다.

8월 7일 맑음  
오늘은 수박씨를  
마당에 많이 뿌렸습니다.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푸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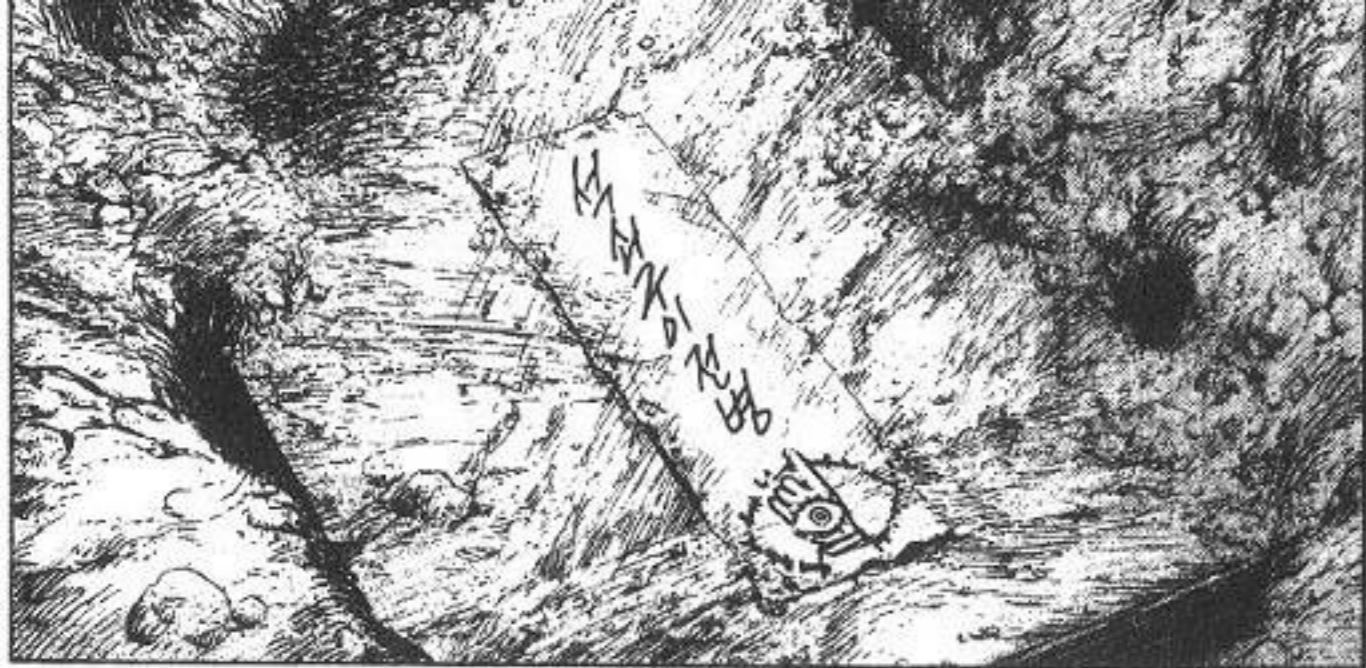


지미  
헨드릭스의  
기타 같다...



누나가 준  
기타도  
다 타버렸군.









하지만  
더이상 페를  
끼질 순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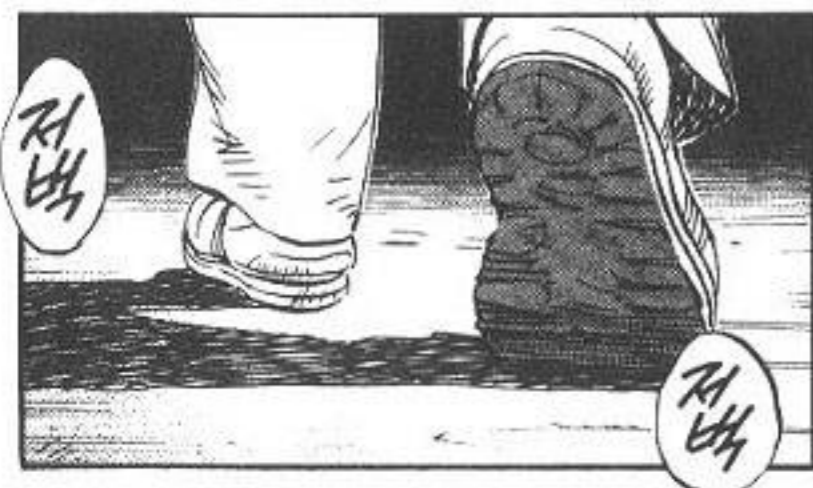
유키지에게  
신세 많았다.

유키지에게...  
신세 많았다.  
감사한다.



괜찮  
그 때가  
괜

괜찮아.  
걱정할 것 없어.  
그 때가 오면 연락할게.  
—켄지.



저녁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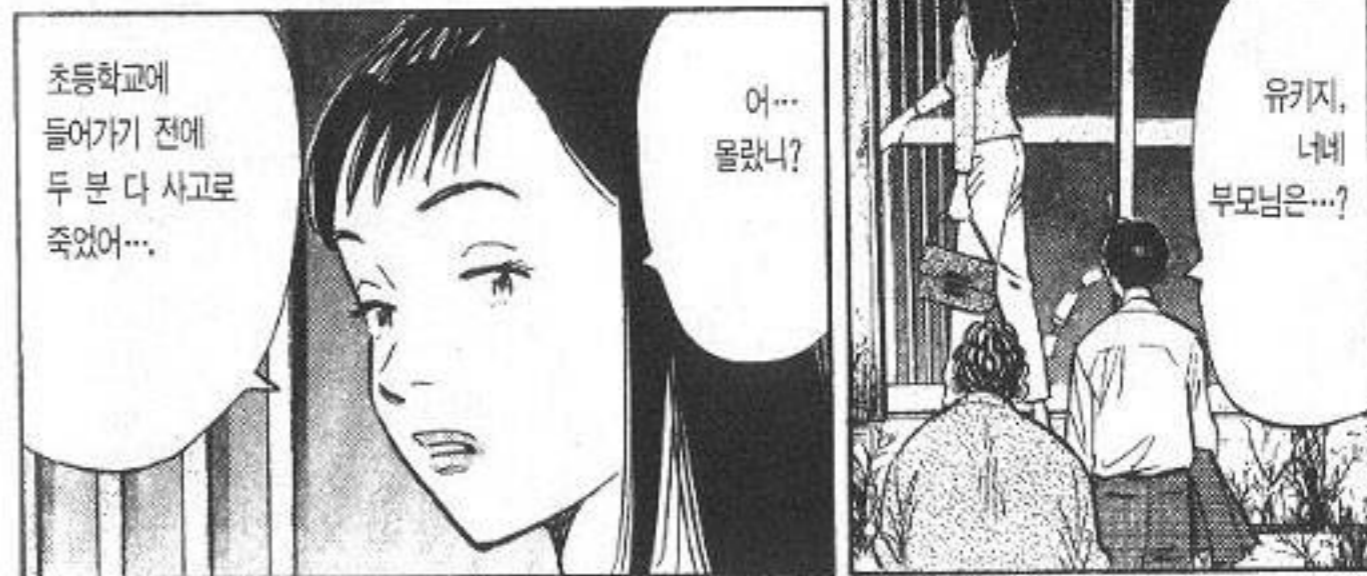


또 뭐냐~  
왜 또 난데없이  
나가지는 거야.

자, 엄마.  
어서 길어.



그 때  
라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다 사고로  
죽었어...

어...  
물랐니?



유키지,  
너네  
부모님은...?



마루오랑  
요시즈네를  
데려왔어.

켄지...  
뭐...

그래서  
쭈욱 여기서  
할아버지랑  
둘이 살았지.



킴킴  
하네.  
켄지...?



킴킴





결전의 순간을 위해.



하지만 이런 거라도 필요하겠지?

분해해서 안을 봤는데, 레이저 총이랄 만큼 거창하진 않더군.



그냥 알 수 있어... 나는 신령 같은 건 아니지만.



왜...

신령님... 당신...



모르지, 나는 신령이 아니니까.

다만...



신령님...

나... 이길 수 있을까?



자네가 들고 있는 그거... 그걸 찾았으니까 서둘러 떠나는 거지?



이걸 보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겠지...

아아... 어릴 때 마당에 묻어 뒀었어.



여어, 당신들도 우리 같은 신세가 됐나?



켄지~ 어딜 가는 건데?



하지만 자네네 가게는 가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도 있어서 좋았는데 말야.



기운내, 사람은 집 같은 게 없어도 살 수 있어.



가요, 엄마.



레이저 총...



이런 것밖에 ...



불난 집터에 가봤는데, 별 건 안 남았더군.





스트라이크를  
노리고 굴러야  
게임이 되지.

볼링을 할 때  
도랑으로  
빠지라고  
굴리는 놈은  
없어.

제고와 방콕의 사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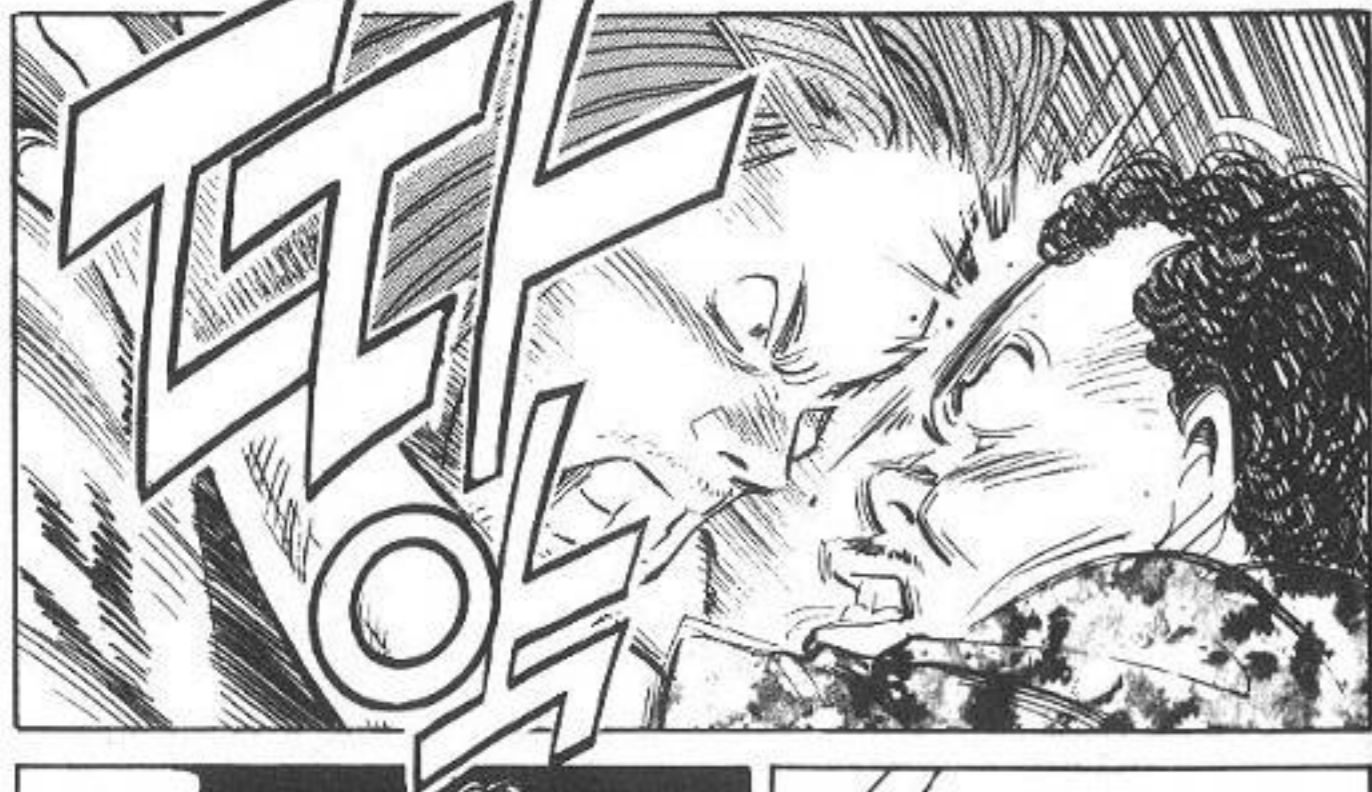


เฮีย!  
อย่าทะเล้ง  
ฉันม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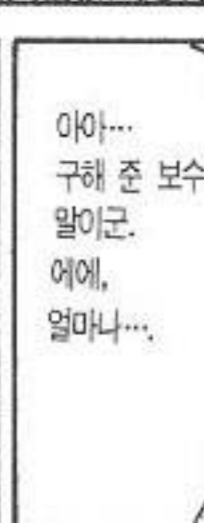
















하... 하지만  
지갑도 시계도 몽땅  
털어가면 강도나 다를 바  
없잖아.  
되찾아 줘요!

네,  
값은 비싸도  
일 하나는  
확실히 해 주죠.



뭐요?

저 남자한테  
대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더운데  
저 코트...



네.  
손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남자를...  
요금은 좀 비싸지만.

뭐?  
가이드 양반도  
돈을 냈소?!



모르죠.

일본인인가  
...?



히...

온몸의 흥터를 감추려고  
입는데요.  
소문으로는 사람을 못이나  
죽였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 바닥 놈들은  
저 남자를 이렇게  
부르죠.

이름도 국적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바가지를 쓰든,  
얼어 터지든, 유괴되든,  
내가 알바 아냐.

마누라한테는  
해외시찰이니 뭐니  
해 놓고 여행지에서  
외국 여자를,  
그것도  
어린애를 사는 놈은...



죽어도 싸!

너 같은  
놈은...



이시즈카  
씨-!

!!



가이드 양반이  
불렀소, 저 남자?

무사하셨군요  
...!



신용카드는  
1주일쯤  
막지 마.





방콕·타이-



2000년 여름-



맛있어?  
쇼군.

쇼군은 바미  
(일가루 국수) 보다  
퀴티아오(쌀국수)가  
더 좋겠지?

쇼군(장군)  
이라고...

# 제1화 방콕의 사나이





아냐,  
우리 집에  
와!

그럼  
우리집에  
와.



당분간  
피해  
대여야겠군.

당신을  
보기만 하면  
죽이겠다.



우리 둘,  
비어랑 이엔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럼 여기서  
질문!



맛있는  
퀴티아이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



푸가 약에 취해서,  
옥상에서  
뛰어 내리려고  
해!



쇼군,  
큰일났어!!



둘 다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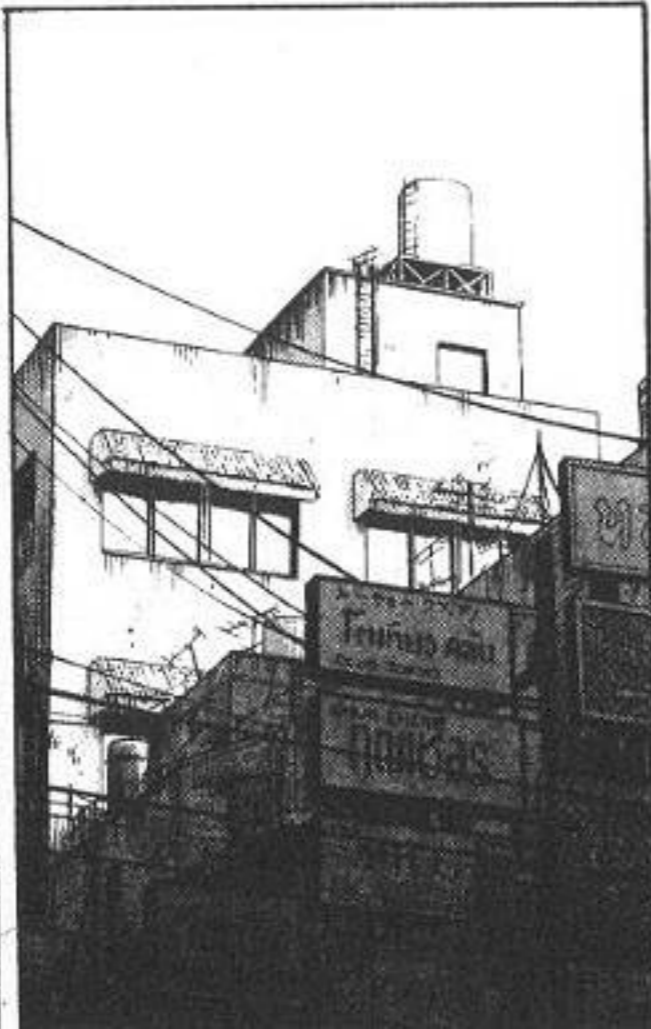
거짓말!



물론  
너희들...



저리 가!!



거기 주인이  
얼마나  
화났다고.

고향에 두고 온  
아이가 중병이라니  
할 수 없잖아.

후후후!



푹

고고 바의  
메이라는 애한테  
잘해 줬다며?



손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며?





이런 곳이나까  
더욱...

하지만 여긴  
친구가  
잔뜩 있어.



그래,  
친구야.



나도  
친구야...?



그럼...



내가 죽으면  
슬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리 가!

죽으면  
편해져!



아젠  
이런 일  
지긋지긋해!

난  
죽을래!  
이제 싫어!



나하고  
반대군.



하지만  
여긴 친구  
없어!

고향에는  
친구 있어.



다들  
슬퍼할걸.

거짓말!  
나 같은 게 죽어도  
슬퍼할 사람 없어!



내 고향에선  
친구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고향에  
친구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소년  
선데이라...



싸요-  
새 책입니다-!



「우르세이  
아쁘라」  
였던가?

다카하시  
루미코라...



오랜만이군...



사카다  
노부히로...?  
이건 누구야?

아다치  
미츠루는  
이제 「터치」가  
아니군.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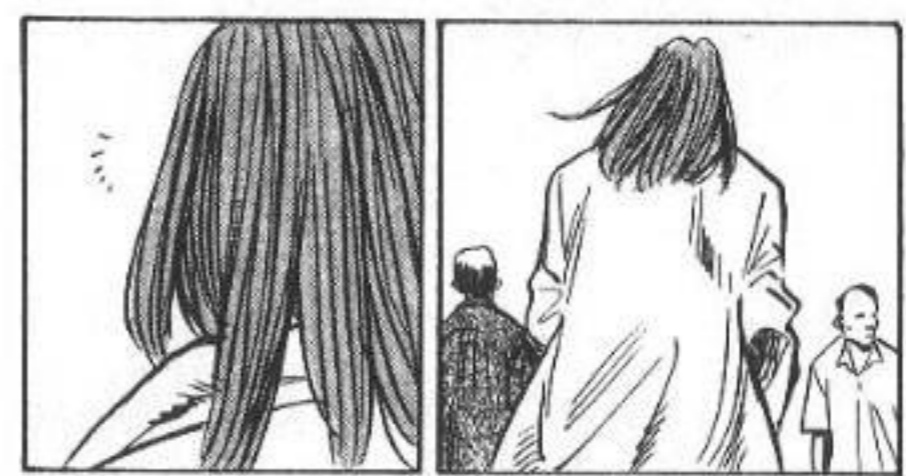
ㅋ...



...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슬퍼...



일본 잡지,  
새 책 있어요-!

싸요-.





학산코믹스  
1117

### 20세기 소년 3

2001년 1월 15일 초판인쇄  
2001년 1월 25일 초판발행

저 자 : URASAWA Naoki  
역 자 : 서현아  
발행인 : 황경태  
발행처 : (주)학산문화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77-1 학산빌딩  
전화 : 790-8071~4 FAX : 790-8075  
1995년 7월 1일 등록 제3-632호  
<http://www.haksanpub.co.kr>

[20世紀少年]

© 2000 by URASAWA Nao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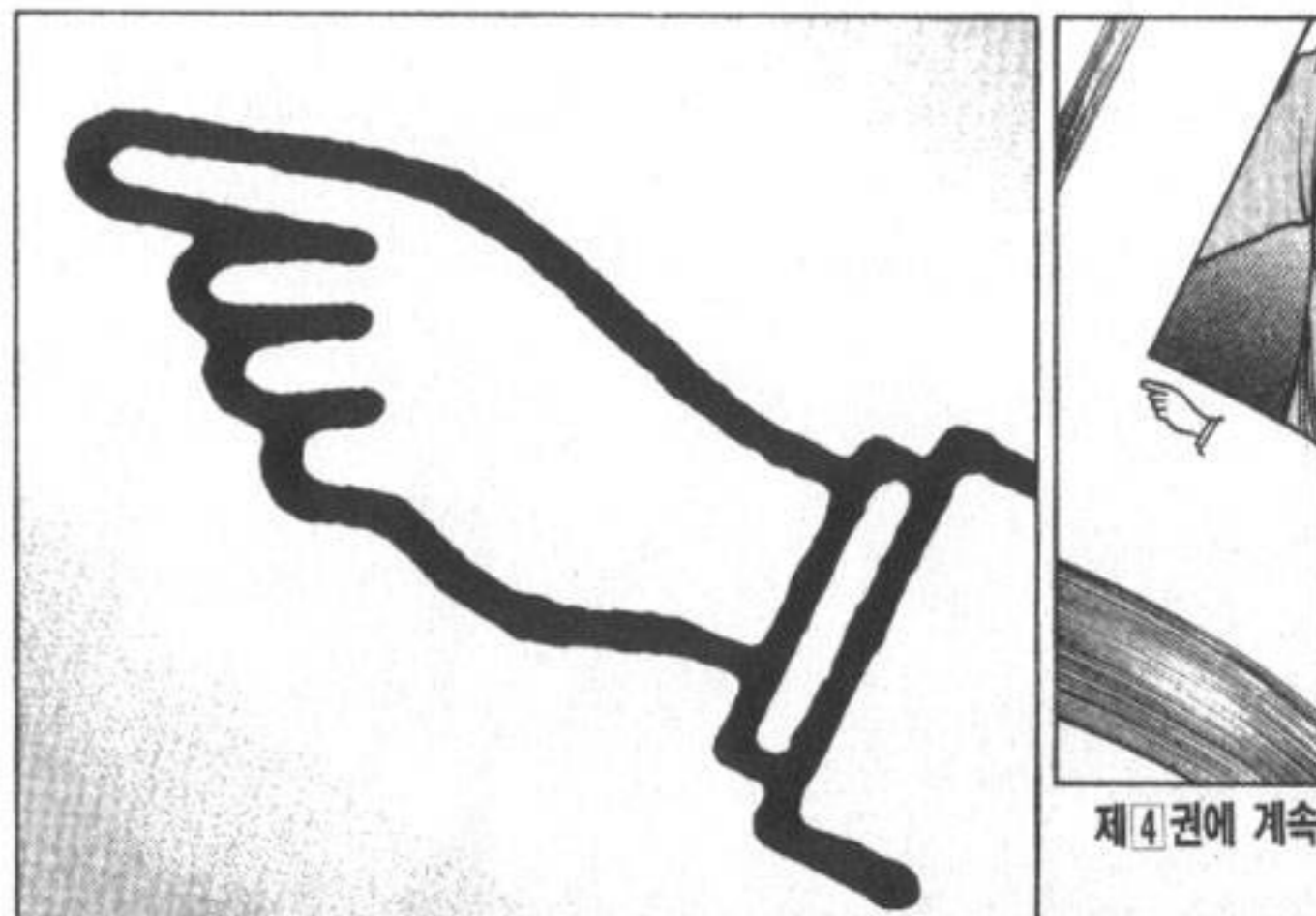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2000 by SHOGAKUKAN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SHOGAKUKAN INC.

through INTERNATIONAL BUYERS AGENT LTD.

값 3,500원



제4권에 계속